

LG U+ 송출중단 책임 공방 CJ ENM

“과도한 인상” vs “불성실한 협상”

콘텐츠 사용료 협상 결렬

LG U+ “올 사용료 2.7배나 인상
고객들 볼모 채널송출 중단 주장”

CJ ENM “U+, 협상요구 계속되면
모바일TV 이용자 수척조치 안취”



은 U+모바일tv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볼모로 인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채널 송출을 중단하겠다고며 인상 주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를 하면서 송출 중단 사태까지 몰고간 것은 CJ ENM OTT인 ‘티빙’에만 콘텐츠를 보내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정하고 있다. CJ ENM이 2023년까지 티빙 가입자를 8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오리지널 올인 전략’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의 주장이 계속될 경우, 플랫폼과 PP의 상생협력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시청권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중소방송채널협회도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CJ ENM의 유료방송 시장 독식을 규탄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LG유플러스는 이후에도 CJ ENM의 콘텐츠 사용료 인상 요구는 이어질 것이라며 타 통신사와도 OTT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인 데다, IPTV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도 남아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CJ ENM, “LG유플러스, 불성실한 협상이 원인”**

CJ ENM은 LG유플러스와 협상이 결렬된 것은 금액 인상이 아니라 불성실한 협상이 근본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U+모바일tv의 CJ ENM 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금액 자체가 적어 인상을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CJ ENM측은 “LG유플러스에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계속 외면했다”며 “U+모바일tv에 대한 이용자 수조차 안 쥐, 부득이하게 실시간 채널 송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회사는 추정된 가입자 규모로 공급 대가를 제안했으나 LG유플러스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IP TV 서비스를 ‘모바일 IPTV’라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OTT 서비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U+ 모바일tv’를 OTT 서비스로 유권해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CJ ENM은 높아진 OTT 위상을 고려할 때 유료방송 콘텐츠가 제 값을 받기 위해 IPTV 프로그램 사용료와 별도 협상이 필요해, 콘텐츠 가격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CJ ENM측은 “U+ 모바일tv는 LG유플러스 IPTV 가입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가입·탈퇴가 가능하고 IPTV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이외 특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여서 별도 계약대상”이라며 “LG유플러스 등을 비롯한 통신사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부가서비스로 콘텐츠를 헐 값에 활용하는 관행은 이제부터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그러면서도 향후 접점을 찾기 위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양사의 협상 결렬로 OTT ‘시즌’에 대해 현재 CJ ENM과 같은 갈등을 겪고 있는 KT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KT 시즌에서도 CJ ENM 콘텐츠 실시간 방송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文, 공평한 백신 접근권 강조 백신 허브역할 수행 의지도

**문재인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활동 소개**

문재인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과 백신 파트너십 협력 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 수행 의지도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1세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백신 공급의 조속한 확대’가 백신의 공평한 접근 보장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단기 처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 ‘G7 국가들과 백신 파트너십 모색’ 의지를 전한 뒤 미래 팬데믹 대비 차원에서 권역별 협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동북아 내 보건안보 협력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활동도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첫날 호주, 독일, EU(유럽연합) 정상 등과 모두 3차례의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어 정상회의 이틀째인 13일(현지시간) ‘열린 사회와 경제’, ‘기후변화·환경’을 각각 다루는 확대회의 2, 3세션에 참여한다. 정상회의 기간 문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로 향한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국민 방문에서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 추르츠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백신 1차 접종자 1180만명... 인구 23%

얀센백신 대상자 58% 접종 완료
접종 완료자 299만명, 인구 5.8%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118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 23% 규모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얀센 백신은 전체 대상자 58%가 접종을 마쳤다. 정부가 상반기 목표로 세운 최대 14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기대도 높다.

1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12일 하루 신규 접종자는 1차 38만6223명, 백신 접종 완료자는 11만 7602명이다. 누적 1차 접종자는 지난 2월26일 접종 시작 107일 만에 1180만 2287명으로 집계됐다.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299만2129명으로 전 인구의 5.8%다. 2회를 맞아야 하는 아스트라, 화이자 백신과 1회 접종 백신인 얀센 백신 접종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상반기 접종대상자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63.1%, 화이자 84%가 1차 접종을 마쳤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아스트라제네카 5.6%, 화이자 44.2%다. 얀센 코로나19백신의 예방접종이 시작한 지 3일 만에 대상자 중 58%가 접종을 완료했다. 추진단에 따

르면 얀센 접종 대상자 97만7644명 중 56만6847명이 접종에 참여했다. 예비명단을 통한 잔여 백신 접종자는 아스트라제네카 77만6023명, 얀센 6만1986명이다.

접종률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반기 1차 목표치인 1300만명 + α, 최대 14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접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단에 따르면 14일부터 의료기관이 없는 섬 지역의 30세 이상 주민을 위한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15일부서는 희귀 혈전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30세 미만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정부는 30세 미만 접종 목표 인원을 선착순 20만명으로 한정할 가운데 7~15일 예약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대상자들이 몰리며 3일만인 지난 9일 사전 예약이 마감됐다. 앞서, 예비군·민방위 등에 대한 얀센 접종 예약 역시 조기 마감된 바 있다.

추진단은 오는 17일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접종 계획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40, 50대와 고등학교 3학년 등 대입 수험생 등에 대한 접종 일정이 담길 전망이다. 3분기 1차 접종 대상은 2300만명 이상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온·오프라인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200여개 흥삼브랜드 + 2만여개 인기상품

복지물과 웹카다로그를
통해 남녀누구나 평생 판매 수익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업

25년 역사 브레인TV 방송국 소유 핫터그룹

(주)핫터라이프 T. 070-7204-4515